

700여 수목 교잡... '은수원사시' 탄생

- 현신규 중심으로 한 임목육종 연구학파

글 김근배 전북대 교수

과학자가 뛰어난 연구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의 능력과 열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잘 갖추어진 연구여건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그리고 진심어린 후원 및 격려도 큰 힘이 된다. 과학자로서의 성장과 활동에는 수많은 난관과 실패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직도 외면... 임목육종 연구 외길

현신규(玄信圭, 1912~1986)는 1912년 평남 안주에서 태어난 임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이다. 임목육종 분야에서는 우수한 형질을 지닌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쉽지 않음에도 그는 세계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리기테다소나무, 은수원사시나무(일명 현사시), 양황철나무 등을 교잡육종을 통해 개발해 냈다. 아울러 그의 연구와 열정이 어우러져 한국의 국토는 짧은 기간 안에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세계적 과학자로 성장하고 국가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몇몇 후원자들이 특히 많은 도움을 준 덕택이었다.

현신규에게는 청년시절에 '빛과 소금'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는 원래 대학에서 문

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려 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1933년에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에 입학하였다. 하고 싶던 학문을 못하게 된 그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고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다. 이 때에 그의 옆에 같은 학교의 농학과에 다니던 정희섭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친구는 언제나 함께 하면서 현신규에게 입을 만한 책이나 본받을만한 인물을 소개해 주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특히 친구 정희섭은 그의 인생 진로를 결정적으로 바꿔게 하였다. 현신규는 수원고농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니 그에게 취업을 하지 말고 대학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그는 집안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유학은 엄두도 내지 못내고 있을 때였다. 친구는 자신이 중등학교 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으니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비는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현신규는 즉석에서 거절했으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호소하는 친구의 요청이 워낙 완강하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았듯이 현신규도 나중에 다른 사람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답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큐슈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리기테다소나무 · 양황철 나무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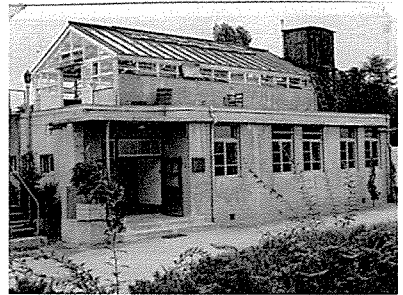
과학과 종교는 종종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마찰과 갈등을 빚는다. 그러나 현신규에게는 과학과 종교가 잘 어울리는 파트너로서 하나로 합체되어 있었다. 혼신을 기울여 과학연구를 하는 것이 곧 신이 그에게 내린 소명이었고 좋은 과학연구를 통해 신의 뜻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 기독교 신앙은 그에게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과 혼신을 더욱 불사를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덕분에 그는 혼이 깃들은 과학연구를 평생에 걸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큐슈제대에서 만난 고게쓰 교수는 연구자의 정신과 자세를 심어준 보기 드문 ‘참스승’이었다. 현신규는 1933년 대학에 진학했고 뒤이어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지도교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때에 식물생리학의 권위자로 학문과 인품이 두루 뛰어난 고게쓰 교수로부터 직접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실험연구에서 몇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첫째로 과학연구를 할 때는 사전에 문헌조사를 충분히 하고 치밀한 실험계획을 세울 것, 둘째로 실험결과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은 많이 하되 결론은 욕심을 버리고 적게 맺을 것, 셋째로 논문의 문장은 같고 다듬어서 간결하고 명료한 명문으로 만들고 영문의 경우는 외국인의 교정을 받을 것 등이다. 실제로도 연구논문을 새까맣게 고쳐주고 몸소 실천하며 보여준 그의 이같은 연구활동은 이후 현신규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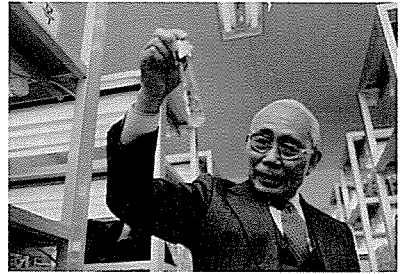
현신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지도교수의 가르침에 크게 힘입은 결과였다. 1956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고게쓰 교수는 그에게 “자네는 돈이나 벼슬 욕심내서는 안되네. 학문에 뜻을 두었으니 그것에 일생을 걸고 살아야 해. 끝까지 한 길로 가면서 자족해야지”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현신규는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임업시험장 책임자, 농림부 산림국장 등과 같은 좋은 조건의 유혹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년 퇴임 후는 물론 죽음을 맞을 때까지도 임목육종 연구자라는 외길 인생을 걸었다.

끝으로 현신규에게는 오랜 기간 과학연구를 함께 한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다. 임목육종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야 하므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일례로, 그는 은수원사시나무를 개발하기 위해 7백여종의 교잡품종을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실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일을 그의 후배와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히 해냄으로써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임목육종연구소 전경



조직배양묘를 보고 있는 현신규의 생전 모습

친구 · 제자들 모여 탄탄한 연구학과 형성

그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목육종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여러 젊은 연구자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있던 임경빈이 참여하였고 김경석은 교사직도 버리고 이 연구소에 합류하였다. 제자 안건용과 심상영, 구근희, 홍성욱 등도 연구대열에 가세하여 오랫동안 열정과 투지를 불태운 주요 연구자들이었다. 이 때문에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탄탄한 ‘연구학과’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들에 의해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얻어질 수 있었다. 현신규가 그동안의 공로로 5.16민족상을 수상받을 때 개인이 아니라 연구소 이름으로 받기를 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체가 받을 수는 없어 훈장과 상패는 그가 받는 대신에 상금은 연구소에 기부하였다.

이와 같이 현신규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 그의 생애와 학문은 이들을 때어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간에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과학도로의 본격적인 입문, 전공에 대한 애정, 연구자의 자세, 뛰어난 연구성과의 발표 등에 이르기까지 친구, 스승, 후학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신규의 과학 연구가 가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특출난 인물이었기에 많은 후원자를 옆에 둘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과학자로서의 그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기도 하다.